NAVER
카페홈 가입카페 새글 내소식 채팅 박재형

전체글보기 【알립니다】 【Drawing】-煥 【Cartoon】- 煥 【Fiction】 - 煥 【完 - 끝났어요!】

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2019 활동이벤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초자연적 또띠아】
【다회님만】
【홍보관】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Behind Story】
【잡담코너】
【비평&추천】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상처받은 엘의 유희 (프롤로그&1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14. 01:05 조회 806

댓글 14 URL 복사

제가 배신물도 보고싶고 엘이 유희가눈 편도 보고 싶어서 두개를 섞어보았습니다.

원래 쓰던거랑 동시 연재 하겠네요~
===
"흑..흐윽...흑흑"

이곳은 물의 영역. 하지만 평소와는 달르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다.

"대체..대체왜..난...너희들을 믿었는데...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흐윽"

어둠속에 홀로 앉아 울고있는존재

그는 마음씨 따뜻한 이번대의 물의 정령왕,엘이였다

***회상

-어라?저기에 다 모여있네?좀 놀래켜줄까?-

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트로웰의 등 뒤로 접근했다.그리곤

"와악!!"

트로웰을 놀래켜 주려고 했으나 돌아오는건 싸늘한 시선 뿐이였다

"네가 여긴 왜 온거냐,엘퀴네스"

???트로웰이 왜 저러지?혹시 내가 놀래켜서 화난건가?

"트,트로웰?혹시 내가 장난쳐서 화났어?미,미안해. 난 그냥 장난한번 쳐보려고..."
"하,내가 고작 니까짓놈의 장난에 화를 낼정도로 속 좁은 놈처럼 보이나?어리석군 엘퀴네스"

트로웰이 그렇게 말하며 나를 노려보았다
더 슬픈건 트로웰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두가 나를 오물 보듯이 쳐다보았다

"아,아버지?왜, 왜그렇게 노려봐.."
"너따위, 내 아들로 둔적따윈 없다"
"맞아!!감히 하찮은 인간의 전생을 가진 너따위가 우리 엘퀴엔의 아들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시죠,엘퀴네스"
"내가 왜 전생에 너 까짓거랑 계약할려고 매달렸는지 몰라"
"미네..크로아첸.."
"꺼지라는 말 안들리나?귀가 막혔다면 내 친히 뚫어주지. 내가 친히 해주는걸 감사하게 여겨라"
"...뭐?"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쿵!!

"윽!!커..커헉"

나는 입에서 피를 한웅큼 쏟아냈다. 엘뤼엔이 나에게 신력구를 던진 것이다. 그것도 아주 고농도의 신력구를..

"꺼져라,엘퀴네스. 한번만 더 내눈에 띄면 그땐 내가 친히 소멸시켜주지"
"꺄아아,역시 엘뤼엔 저딴 쓰레기한테도 자상하다니~"

"크윽..!"
"빨리 내눈앞에서 꺼져. 내 소중한 눈이 더렵혀지고 있잖아"
"다음번에 다시 눈에 띄면 그땐 소멸시켜주지

하는수 없이 난 물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신력구에 맞은 상처를 회복했다. 신에게 맞은 것이라 제데로 낮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번 시도하니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

"흑..흐윽..흐윽.."

난 그대로 주저 앉아 울었다
도대체 왜!!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한테 잘해줬잖아
다정한눈으로 바라봤잖아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아지는 거야?

"대체..대체왜..난 너희들을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흐윽"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왜 날 경멸하는거야?

'그건 내가 알려주마...나의 아이야'

!!!누구지?처음들어보는 목소리..하지만..왠지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하얀 빛이 눈앞에 나타나며 그곳에서 사람이 나왔다

난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주신님..이구나'

난 자동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주신에게 인사했다

"물의 지배자가 만인의 창조주이자,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주신님을 뵙습니다"
"그래..나의 아이야..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니?"
"...어째서..입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날 경멸하게 된 이유는..

"악신 카류안이 소멸할때 자신의 남은 모든힘을 모아 너에게 저주를 걸었다..내가 제거해보려고 했지만 나랑 동등한 존재라 그런지 불가능 하더구나.."
"저주..라면?"
"네가 겪었듯이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를 증오하게되고 상처입히는 저주다.."
"풀 방법은 있습니까?"
"...네가 그들에게 상처받고 그들의 손에 죽어야 저주가 풀린다"

아아..카류안놈..끝까지 비겁하고 비열하구나..

"그럼..그냥 제가 죽을께요.."
"미안하구나..아이야.."

'내가 해줄수 있는건 이것밖엔 없구나'

뒷말을 삼킨채 주신은 그대로 사라졌다
조용해진 물의 영역
엘은 그곳에 혼자 멍하니 서있다

"그냥...나만 죽으면되..나만.."

엘은 물의 물의 영역에서 혼자 멍하게 중얼거렸다

<다음날>

쿵!콰아앙!

!!이소리는..내가 쳐놓은 결계가 깨지는 건가?
지금들어오는 기운은 그들이군..

"여긴 왜 온거지?너희들은 날 꼴도 보기 싫어하지 않았나?"
"그렇긴하지만 기분 나빠서."
"뭐가 말이지?"
"너까짓게 감히 결계를 쳐?우리가 죽여주면 그걸로도 감사하게 여길것이지 감히 이딴 허접한 결계를 치다니. 멍청하군,엘퀴네스"
"트로웰, 멍청한놈한테 그렇게 말해봤자 쟤가 뭘 알아들어.그냥 속이 풀릴때까지 패버리자고"
"그러는게 좋겠네요. 스트레스 해소도 풀릴껍니다"
"애초에 그 스트레스 원인도 저놈 때문이야. 그러게 왜 때어나선,쯧"

쿵!!

난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다
트로웰의 그말이 송곳이 되어 내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벌써부터 겁먹다니, 역시 겁쟁이군. 너같은놈은 그저 우리의 스트래스 해소도구나 하면 되는거다"
"헤에~벌써 기대된다~빨리 시작하자~"
"어이,마왕꼬맹이. 너만 재밌는거 하지말라고"
"우리도 빠질순 없죠"
"엘뤼엔도 빨리와"
"알았다.바로 가지"

그다음부턴 일방적인 공격과 구타.그리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입히는 그들의 폭언이였다

'죽어버려,엘퀴네스'
'너같은게 왜 엘뤼엔의 다음대야?'
'너따위를 아들로 두다니,내가 잠시 미쳤었군'
'인간따위의 전생을 지니다니,정령왕의로서의 수칩니다'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너따위가 감히 내 대부노릇을해?'
'하찮은 인간같은 정령왕따윈 내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한참이나 나를 구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각자의 영역.그리고 신계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의 상처를 치료하며 울었다

"흐읍..흑...흐으윽"

나의 슬픔을 느낀 물의 정령들이 나에게 다가와 위로해주었다

-엘퀴네스님..울지마세요오-
-엘퀴네스님 옆에는 저희가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왕이시여.저희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순서대로 나이아스?운디네,그리고 시큐엘이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울음을 멈추고 미소지어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씁쓸하면서도 상처와 고통,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이였다

그후 그들은 매일마다 나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구타했고 온갖 폭언을 날렸다.

그것도..

무려 1년동안..

주신님이 왔었던 이후로 1년이 지났고 난 그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와 동시에 난 그들에 댜한 불만이 한가득 쌓여갔다.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들이 증오스러웠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나는 결국..
다정하고 상냥한 마음씨를..
따뜻함이 담겨있는 미소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흘리던 눈물을..
잃어버렸다

더이상 나에게 눈물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건 차디찬 엘퀴네스의 성격뿐이였다

더이상 난 예전처럼 돌아 가지 않아..

그리고..날 이렇게 만든건 너희들이야

<이동>

나는 그대로 에바스 에덴으로 이동했다

"왜 온거지,엘퀴네스?내가 분명히 내눈에 띄면 소멸이라고 했을텐데. 내말이 말같지 않은건가"
"이유따윈 없어.."

그냥..마지막으로 보고 싶을뿐이야
나의 가족이였던 너희들을..

이젠 과거형이지만

"흥!어리석군,엘퀴네스.역시 저런건 그냥 소멸시켜야되"
"왠일로 시커먼 도마뱀이랑 생각이 같군"
"내가 드래곤 졸업한지가 언젯적인데!"

(※현재 시간은 엘이 과거에서 돌아온지 2000은 지난 시점입니다)

"훗..너희에게 한가지 조언을 하지..
너희는 지금 한말들을 후회하게 될꺼야. 그리고 경고도 하나 할께. 내가 소멸하고나선 다시는 날 찾지마. 난 이제 너희들이 미우니깐.."
"유언은 그걸로 끝인가?이젠 거슬리는 이놈을 빨리 치우자고"
"잠깐 기다리시죠,크로아첸. 우리만 할께 아니라 마왕과 유니콘도 데려오는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내가 가서 페르도 데려올게~"
"부탁합니다,트로웰"

그래...마음껏 죽여..난 이제부터 너희들을 원망할꺼니깐..용서하는 일따위는 없을꺼야

"나왔어~"
"빨리 왔네요"
"엘퀴네스를 죽인다면서?어서 시작하자. 저딴게 내 대부였단게 기분나쁘거든~"
"나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인간같은게 내 친구라고 하다니. 기분나빠"

아스..시벨..결국 왔구나..이순간이

"자,시작하자~"

트로웰이 먼저 흙으로 검을 만들어 나의 배를 찔렀다. 그것을 시작으로 모두 각자 무기를 만들어 나를 공격했다
나는 엄청나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내가 바란거니깐

"큭..커헉!"

나는 입에서 계속해서 피를 토해냈다
점점 눈앞이 희릿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제..이다.엘..스"

푸욱!

마지막으로 엘뤼엔이 나의 심장에 신력으로 만든 검를 박아 넣었다

그리고 나는 소멸했다

***
"어서오십시오..엘퀴네스님"
"오랜만이에요. 아레히스"
"네..이번사건은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내가 원했던 거니깐...그래도 다시는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네요.."
"..엘님.."
"난 정말 괜찮아요,아레히스.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곤 씁쓸하게 웃었다
아아,그래도 나에게 아직 미소가 남아있긴 한가보네

"네..그럼 환생할 준비를 하시죠. 아,그전에 주신님께서 부르셨으니 주신전으로 가시죠"
"주신님이?왜지?"
"글쎄요?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신계에 있는 주신전으로 왔다. 여기로 오면서 나는 혹시 엘뤼엔이나 크로아첸,페르데스를 만날까 가슴졸이면서 왔다

"어서오십시오,결정자 아레히스님,엘퀴네스님. 주신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행천사의 안내에 따라 신전으로 들어갔다

"어서오렴,엘"
"주신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궁금하지?실은 내가 너의 육체를 복구 시켰거든"
"네??"

그게 무슨소리야? 난 분명히 죽었는데?

"어,어떻게?저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기 직전 내가 너의 육체를 내 신전으로 데리고 왔다.그리고 상처들을 치료했지. 하지만 너의 영혼은 이미 빠져나갔더구나"
"아…"
"결론적으론 너는 아직 죽은것이 아니니 다시 너의 육체로 돌아갈수 있다...그렇게 하겠니?"
"그럴께요.."

죽기로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죽고 싶지 않았나보다
나도참..이기적이네..

그러곤 나는 다시 내 육체로 돌아왔다

"윽..!"
"아직 많이 아플거다.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다 나은것은 아니거든.그러니 당분간은 여기서 치료를 받아라"
"윽..네.."
"수행천사라 네가 머물곳을 알려줄거다. 그리고 아레히스는 이만 물러가 보거라"
"네,주신님"

아레히스는 주신님에게 인사를 하고는 명계로 돌아갔고 나는 수행천사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위에 누운 나는 내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금으로 틀을 만들고 중심에 미세하게 작은 보석들을 끼워 넣은 아름다운 반지로 주신님이 내가 방으로 오기 전에 주신것이다

'이걸 끼면 내기운을 감춰준다 그랬지..그럼 날 찾을순 없겠네..'

속으로 안도하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았다
죽은것은 아니니 정령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하지만 그건 싫다.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다른차원으로 갈수도 없는데..

"미치겠네.."
"뭐가 말이냐?"
"!!!깜짝이야.주신님이 왜 여기에 계세요?"
"지금 너의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왔지?"
"고민이요?"
"어디로 갈지 고민이잖니~"
"그렇긴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는데요.."
"내가 생각해 둔곳이 있단다"
"??거기가 어디에요?"
"바로 지구란다."

!!!

불가능하다 정령왕은 다른 차원을 갈수 없다
그런데 지구라니

"푸후훗,아크아돈은 걱정마라. 나의 권한으로 네가 없어도 가뭄이 일어나지 않게 해두마."
"가,감사합니다,주신님"
"뭐 이런걸로. 네가 상처를 입는데 도와주지 못해 이거라도 해주는 거다"

순간적으로 눈가가 붉어진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든후 말했다

"주신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 도와주신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감사합니다,주신님"
"..."

'아아,너는 정말 뼛속까지 다정하구나.그만큼 상처받을 일도 많겠지..내가 창조한 내아이가 상처받으니 나 또한 가슴아프구나…'

"자..이제 어서 자야지?"
"아니네"

나는 그대로 잠에 빠졌고 지구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2년동안 치료에 열중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
"드디어 이날이네요"
"그러게요,아레히스.1년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는지 치료하는데 2년이나 걸렸네요"
"어서 가보렴,엘.이제 시간이 다됬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주신님과 아레히스의 배웅을 받으며 지구로 갔다.

***
<어느건물 지하>

"다 된거냐?"
"아직입니다."
"빨리 죽여라. 우리가 했다는걸 들키기 전에"
"네"

이곳은 어느 건물에 있는 지하
검은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한 아기에게 독을먹여 죽였다

"다 됬으면 빨리 숲속에다 가서 묻어라. 누군가가 보기전에 빨리"
"알겠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혼자 미친듯이 웃었다

"큭.크하하하하하!!이제 너희 기업은 끝이야. 이젠 내가 정점에 서있을 것이다!!으하하하하!!"

그는 대한민국에서 No.2기업. PSH기업의 사장인 박수형이였다.

"아무도 내가 한짓을 모를것이다. 아무도!!하하하!!"

고요한 적막속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진다

***
<슈우웅>

"아야야..대체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느 숲속 한가운데 떨어졌다.
그렇다. '떨어'진것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오로지 나무들 뿐이였다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위해 물로 거울을 만들어 보았다

지금 나의 모습은 외형은 그대로고 머리는 연갈색으로,눈은 검은색으로만 변했다

몸은 인간의 몸이 될꺼라더니..진짜네..

그러곤 지구로 오기전에 주신님과 했던 대화를 떠올린다.

***
"엘,지구로 가기전에 알려줄게 있어"
"뭔데요?"
"일단 첫번째로 너는 지구로 가면 인간의 몸이 될꺼야. 하지만 일반인들보단 더 튼튼하게
둘째로 내가 너에게 힘을 조금 줄꺼야. 그래서 너는 바람,땅,불등 다른 정령왕들의 능력을 쓸수 있지만 고유능력까진 못써.
세번째로 넌 지금 그 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크아돈이나 정령계로 올수 있어"

그런 기능이!!지구에서 굉장히 유용하겠어

"감사합니다 주신님. 그럼 이만 출발하죠"
"그러렴~"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원래와는 다른 것이다
게다가 차원을 이동할수 있는데 기운까지 감춰주니 그들에게 내가 살아 있다는걸 드킬 가능성도 많이 낮아진다

"감사합니다,수신님..유용하게 잘쓸게요"

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빨리빨리해,빨리빨리. 늦으면 또 한소리 들을거라고"
"네네,알겠습니다요~"

누구지?익숙한 언어..여긴 한국인가 보네?
그런데 뭐하는거지? 저렇게 비밀스럽게..
잠시만 지켜볼까?

"구멍좀 빨리파봐,누가 보기전에 빨리 시체 묻어야된다고"

!!!시체?

가만보니 3실짜리 아기가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설마 저 어린아기를..!!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어린 아기를 죽이고 산속에 유폐하다니!!
나는 반사적으로 그들앞에 나가 낮게 깔린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뭐하는짓이냐.."
"!!!넌 누구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물었을텐데?"
"!!!"

내가 살기를 흘리자 그들은 겁을 먹고 뒤도 안돌아 보고 도망쳤다

나는 도망가는 그들은 무시한체 죽어있는 아기를 향해 다가갔다
아기를 안기위해 손을 뻗는 순간 아이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아기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바로 죽어버렸다
말한마디만을 남친채...

아직 어린나이에 타락한 인간에게 죽고 말았구나..

나는 그 아이를 안아들고 묻어주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그렇게 내가 찾은곳은 산의 정상이였다
나는 흙을 들어내 구석으로 옮기고는 그아이를 조심스레 묻었다.

나처럼 연갈색머리의 검정색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조심스래 묻어주고나서 그아이의 묘 앞에 무릅을 꿇고 좋은곳으로 가길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결정했다

이제부턴 내가 이 아이가 되기로..

그리곤 다시한번 떠올렸다..아직 3살밖에 안된 어린아기가 했던 마지막 말을..

'부모님을 도와줘요. 슬퍼하지..않도..록'

아기는 그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내가 미처 치유술을 쓸틈도 없었다

'미안하다..내가 살려주지 못해서..'

그리고 나는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갔다

***
나는 등산객들이 올라올시간에 맞춰 미법으로 아까봤던 아기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정령왕이니 마법을 쓸줄 알았기에 폴리모프정도는 쉬웠다

아기의 모습으로 바꾼 나는 바위로 올라가 쓰러진척 연기를 했다

그리고 역시나 나를 발견한 등산객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니 신분조회가 될만한 것이 당연히 없으니 치료를 한 후에 보육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그 사이에 깨어난척 연기를 했고, 보육원으로 가는 그들을 군말없이 따라갔다

다행이 나는 들어온지 1년만에 어느 부잣집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들 부부는 아내가 임신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양을 결심했고 나를 보고는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왠지모르게 친근하게 대해줄수 없았다..입양이 된거면 가족..이니깐..
가족 하니 그들이 생각나서 도무지 친하게 대할수가 없었다.
다행이 그들은 내가 잘 웃지 않는것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것이라고 여긴 모양이다

뭐..틀린건 아니지..난 그들에게 상처입고 고통받은 영향으로 이렇게 된거니까..

그들은 나에게 '이청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들의 성을 따른 이씨에 푸를 청에 꽃 화를써서 청월..그렇게 지은 이유는 나를 만났던 날
푸른빛을 띄는 꽃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곤하다 말하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따라가 내방으로 갔다.
그리곤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만날줄은 몰랐지만 널 다시만나서 기뻐..지훈아. 아니..엘.."

<다음날>
"후아암~졸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가볍게 씻고 나와 옷을 입었다
내가 고른 옷은 푸른색 계열의 하늘하늘한 원피스였다
예전 같았으면 극구 반대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결국 여성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별 상관 없었다
나는 머리를 빗고는 아침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제 내 어머니,아버지가된 두분이 서계셨다

"어서오렴.아직 4살밖에 안됐는데 일찍일어났구나. 뭐 먹고 싶은거 있니?
"..딱히 생각나는거 없어요..
"흐음..어릴땐 잘먹어야 잘크는데..아주머니 아이가 먹을수 있는 음식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바로나온 밥을 먹었고 그런 나를 부모님은 다정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

"아직 어린데 얌전하고 착하구나"
"그러게요, 이맘때 애들은 뛰어 따니면서 움직이는 거 같던데요?"
"이아이의 상처가 큰가보지..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서 상처를 덮어주자고.."

글쎄...이게 과연 덮어지려나..
들어도 이해 못할거라 생각했는지 그들은 내앞에서 나에대해 이야기 했다

하지만 난 그런건 됬어

"전 괜찮아요..딱히 놀지 않아도 상관 없어요"
"청화야..원래 네또래의 아이들은 다 놀면서 자란단다. 너도 놀고 싶지 않니?
"글쌔요..딱히..별 생각 안들어요.."
"청화야..네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른단다..하지만 우린 너의 가족이잖니? 우리는 네가 우리의 가족이라서 정말 기쁘단다"

내가 가족이라서..기쁘다고?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요?"
"응?"
"정말...내가 가족이라서..기뻐요?"
"물론이지,엄마 아빠는 청화 네가 우리의 딸이라서 너무 좋단다"

나는 눈가가 붉어지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는 유리구슬같은 눈물을 한두방울씩 떨어뜨렸다

기뻤다..내가 가족이라서 기쁘다니..
순간적으로 그들이 했덤말들이 떠올랐다

'죽어버려'
'너따위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내가 우는 이유를 대충 짐작한듯한 눈치였고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나를 품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말랐었던 눈물을..

그늘에게 맞을때도,그리고 죽을때까지도 흘리지 않었던 눈물을 한참농안이나 흘려보냈다

아아,이사람들은 정말 나를 친딸처럼 여기는구나..

다시는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그날 허물어졌다

이사람들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어쩌면 정말로 상처가 아물지도..

그렇게 나는 새 가족을 얻었다

나는 새롭게 생긴 내 가족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마찬가지로 나에게 웃어주셨다

그리고..나무위에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존재도 덩달아 살며시 미소지었다

"다행이 웃음을 되찾았구나,엘.."
===
공백제외:7716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제가 항상느끼는 거지만 전개가 너무 빠른건가 싶네요

다음엔 엘이 자라서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이랑 부모님 이름을 뭘로 할지 추천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경가류
분량 대박입니다아~ 혹시 컾링 있나요?(컾링에 중독된 1인)
2020.06.14. 13:53 답글쓰기

ko 작성자
글쎄요~?아직 계획은 안했는데 갑자기 넣고 싶네요~누구로 할까요?
2020.06.14. 15:37 답글쓰기

경가류
ko 전 누구든 괜찮은데.. 갠적으로 크로엘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미 저 상태라서 그건 힘들고.. 누구든간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안 넣으셔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2020.06.14. 19:10 답글쓰기

ko 작성자
경가류 재밌게 넣어버리죠!!스토리 구상했습니다~
2020.06.14. 19:14 답글쓰기

경가류
ko 아앗싸 감사합니다!
2020.06.14. 21:38 답글쓰기

레이테
와아 엄청 재미있네요! ㅎㅎ 재미있게 잘 봤어요!!
2020.06.14. 14:35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다~다음것도 열심히 쓸게요~
2020.06.14. 15:37 답글쓰기

헬마스터
소설 재미있어요!
잘 보고 갑니다! 다음편 기대요!
2020.06.15. 00:01 답글쓰기

ko 작성자
우와~감사합니다~
담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2020.06.15. 06:33 답글쓰기

에리아
분량 정말 좋고요! 내용도 진짜 재미있어요!! 이걸.. 제가 늦게 봤다는게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로! 정말정말 재미있네요!! 아.. 말이 넘 길었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재미있어요..헷><
2020.06.22. 20:03 답글쓰기

ko 작성자
와~감사합니다~길게 칭찬해주시니 의욕생기네요^^